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4월 14일(주일)
교육위원회

4월 20일(토)
할렐루야 찬양대 세미나

4월 23일(화), 24일(수)
선교세미나

5월 1일(수)
수요예배 7시
한우리 베이직 시작

대 예수교장로회
양양교회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김진영 2부/이성민 3부/이성민 4부/이효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 다 함 께
내가 매일 기쁘게
- 봉헌 및 1부/ 한희선 권사 2부/ 김승기 장로 3부/ 조동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전 1:3, 12:13-14 사 회 자
- 찬 양 2부: 주 위해 살아가리 시온찬양대
3부: 거룩한 주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수고를 넘어 의미 있는 삶으로 이성민 목사
- 찬 양 예수, 늘 함께하시네 다 함 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강 시 온
대표기도
 - 찬 양 내가 산을 향하여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출 2:1-15 김진영 목사
정체성(Identity)
 - 축 도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조종면 장로 2부/ 임석화 권사 3부/ 최병한 장로 4부/ 김민선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히 12:24-25
 제목: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기도: 안응진 집사 (다음 주 기도: 윤수정 집사)
 설교: 이요한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아기돌봄으로 인해 본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복도에 머무는 성도는, Hanouri
TV를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으니 핸드폰과 이어폰을 활용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부부학교 12기에 함께 하실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 개강: 5월 18일 (8주간)
(매주 토요일 3:30- 6:00)
 - 헌신자 첫 모임: 4월 27일(토)
 - 대상: 부부학교 수료자
 -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카톡 아이디 : DavidQkim
- 헌금 영수증 발급 및 문의 안내입니다.
 -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메일: hanourifin@gmail.com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 재정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허진희 집사 021 0230 8976

선교세미나

- 강사: 김주만 선교사(태국 치앙마이)
- 일시: 4월 23일(화) & 24일(수) 7:30pm 본당
- 주제: 23일(화) "현대 선교의 흐름"을
통해서 본 선교에 대한 이해
24일(수) 선교사의 길(선교간증)

건강한 가정은 세만
한우리 가정사업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성경의 다섯 가지 원리

'23 마더와이즈 & 파더와이즈 자유과정

일시: 2023.05.09.- 06.27.(목)
시간: 오전 10시~12시, 저녁 7:20~9:00
장소: 한우리 교회 조이홀, 비전홀
문의: 오전반 이규삼 권사 021 686 598
저녁반 박경남 집사 027 432 5524
최재인 집사 021 524 896

사무실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비전의 나라 시니어 수련회
주제: WORTHSHIP
일시: 4월 21(주일) - 24일(수)
장소: Hunua Falls Camp
- 교육위원회: 4월 14일(주일) 조이홀
수요예배 시간 변경 및 한우리 베이직
- 5월 1일(수)부터 수요예배는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수요예배 후, 8시부터
'한우리 베이직'이 6주간 진행됩니다.

7시	수요예배		
8시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8:30	이요한 목사	이성민 목사	안현수 목사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브라운스베이 비치
입구(우천시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4	14	임마누엘 싱가포르 / 네팔은혜
	21	직가바울 / 이집트
	28	아비가일 / 오병이어

교우동경

- 새가족

이름	가족	거주지역
최진욱 노경아		Masons Rd. Oteha
김태원 정상혜	김로이, 케이	Kona Cr. Henderson

- 결혼
박관우 군과 이아영 양이 지난 6일
혼인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하시네

5 C Am7 F D7 G7sus4 G7
 고단한인생길 힘겨운오늘도 예 수 내 마음아시 네
 하루를살아도 기쁨으로가리 예 수 늘 함께하시 네

9 C Am7 F G7 1.C F/CG/C
 지나간아픔도 마주 할세 상도 예 수 내 마음아 시 네
 후회도염려도 온전히말기리 예 수 늘 함께하 시 네

13 2.C F/A G/B C Em7 F C/E C/D D7 F/G
 믿음의 눈들어 주 를보리 이 또 한 지나가 리라 주어진

18 C Em7 Am7 F F/G 1.C F/A G/B 2.C C/Bb G/A
 내 삶의 시 간 속 에 주 의 뜻 알 게 하 소 서 믿음의 서 믿음의

23 D F#m7 G D/F# D/E E7 G/A
 눈 들어 주 를 보 리 이 또 한 지나 가 리라 주어진

27 D F#m7 Bm7 G G/A D
 내 삶 의 시 간 속 에 주 의 뜻 알 게 하 소 서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올타리	주성은	2108354513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2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윷	15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빛	20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나	이광일	212179303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부르키나파소	권경호	21556934	62 LA	경두런	211365151	
	25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우 리	26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6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고태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참 빛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0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필리핀 안티폴로	최종민	272287226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72 웰링턴	이종훈	21781999	
	35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73 에베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경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수고를 넘어 의미 있는 삶으로
(전 1:3, 12:13-14)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독일</p>	<p>“너희가 방탕과 향락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대마초 합법화... 0시 종치자 광장서 1,500명 뺨뺨뺨</p>
<p>4월1일 0시(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요란한 레게음악과 함께 대마초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부활절 밤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 열린 단체휴연 행사에 1천500명이 참여해 베를린 한복판 광장을 꽉 채웠다.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p> <p>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필라델피아 나사렛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심장마비, 심부전 및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p>	
<p>북한</p>	<p>“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리라” 북한 ‘통일 지우기’ 조용히 진행... 이념 혼란 우려한 듯</p>
<p>북한이 작년 말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 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이나 동족과 관련한 표현이 삭제되고 있지만 주민 혼란을 고려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이후 ‘조국통일 3대 현장기념탑’ 철거, 북남경제협력법 등 관련 법률 폐지, 애국가에서 ‘삼천리’ 가사 변경, 평양 지하철 ‘통일역’ 명칭에서 ‘통일’ 삭제 등 통일·화해·동족 개념을 철저히 지우고 있다.</p> <p>이는 북한 당국이 통일과 동족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일시에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 지우기에 관한 의문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이 진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남조선’이 아닌 ‘괴뢰한국’으로 부르라는 내용이 담긴 정치강연자료를 근로 단체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연합뉴스, 데일리NK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을 꾸짖어 주시고,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 [북한] 남북관계를 악화하려는 북한의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로써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살피어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